

# 주일가정예배

2022년 4월 3일 주일예배

인도: 가족 대표

기 원 ..... 인도자

7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8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데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시85:7-8)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 주께서 복 주시려고 택하신 날에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입술을 열어 찬양할 때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도 영생하는 말씀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마음과 언어와 인생이 변화되게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케 하옵소서. 사순절의 고난을 기억합니다. 고난을 지나 부활을 마주할 때, 주님의 생명이 풍성한 믿음으로 자리잡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 341장 ..... 다같이

1.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 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복을 받겠네
2.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 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3.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어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일세  
아멘

기 도 ..... 가족 중

**성경봉독 ..... 히브리서 12장 7-11절 ..... 인도자**

7. 너희가 참은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9.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10.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11.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설 교 .....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 ..... 인도자**

**기 도 ..... 설교자**

**찬 송 ..... 337장 ..... 다같이**

1.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싸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말으시네
2. 내 모든 괴롭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3. 내 짐이 점점 무거워 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4.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후렴)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주기도문 .....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 광 고 】**

1. 코로나19의 빠른 종식과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새롭게 시작하는 정부와 각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우크라이나-러시아의 전쟁으로 고통 받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은혜의 시간되도록 기도합시다.
4. 헌금안내

※중앙교회 공식계좌: 기업은행 022-046724-04-012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중앙교회  
송금 예) “이름+감사” / “이름+주일” / “이름+십일”

##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

히브리서 12:7-11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1940년) 서두에 조지 맥도날드의 글을 인용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죽기까지 고통을 당하셨다. 그것은 인간이 고통을 겪지 않게 함이 아니라 인간의 고통을 그리스도의 고통과 같게 하기 위함이다.” 세상에는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고난 말고도,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많다. 그들의 고난이 나와 무관하지 않고 나를 위한 것이라 생각하고 공감하고 동참할 필요가 있다. ▶많은 이들이 고난을 당한다. 누구나 남의 고통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자신이 막상 당했을 때는 극복하는 것은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 남의 고통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냥 함께 붙들고 울어라. “고통을 참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보다 적은 용기가 더 필요할 때가 있고, 큰 용기보다 작은 동정심이 도움이 될 때가 있으며, 그 무엇보다도 최소한의 하나님의 사랑이 더 중요하다.” 피조물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을 겪고, 고통을 가하면서 살아가다, 고통 속에서 죽어간다. ▶기독교는 고통의 문제를 풀기보다 고통의 문제를 제기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전능하신데, 어떻게 고통을 허용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거나,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인가?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기도도 했는데,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절대선이신데 어떻게 이런 악을 허용하시는가? ▶하나님은 선에 대한 관념이 우리와 다르다. 우리에게 선하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 눈에는 선하지 않는 것도 있다. 우리는 상대적 선과 악의 개념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선이시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할아버지 같은 하나님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올바르게 훈육하는 엄한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할 때, 사랑 개념도 다르다. 사랑은 사랑하는 자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때로 거절하고 때로 징계하기도 하신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히12:8). ▶사랑과 고통은 이율배반적이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므로 우리를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다. 그래서 악과 고통을 허용하신다. 물론 악과 고통은 타락의 결과이지만, 우리를 교정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한다. 통증이 은혜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치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고통은 그를 일깨워 자신의 삶이 우주의 진리를 역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고통은 악인에게 개선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 오히려 영적으로 어중간함은 위험하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는 파멸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나 타인이 고난을 받을 때 “왜”라는 질문 대신에 “어떻게”라는 질문을 가져야 한다.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갈 것인가? 어떻게 그를 도와 줄 것인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섭리해 가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받게 하심으로 인간을 마지막 파멸에서 구하고자 하셨다. ▶이 짧은 현생을 마치고 천국이 오면 모든 의문과 회의는 답변이 된다. 천국에 마련된 나의 처소는 내가 그 장소에 알맞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마치 나만을 위하여 마련된 것처럼 보일 것이다.